

01 중 학 교 3 년

중1,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성적이 안 나오는 해의 값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그러면 무엇을	3
03 자유학년제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갈래별로 **언제부터 성적을 세는지** — 자사고·외고·과학고를 한 표로
- ◆ **중1에만 할 수 있는 네 가지** — 성적이 안 세어지는 해를 쓰는 법
- ◆ 자유학년제에 대한 **네 가지 오해와 사실**
- ◆ 선행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 줄** · 확인하실 여덟 가지

01 · 먼저 사실부터

중1 성적은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중1 성적표를 보고 마음이 급해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향을 확인한 자사고 12곳 가운데 중1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이른 자리가 중2 1학기입니다.

갈래	언제부터 세나
자사고	중2 1학기부터 — 확인한 12곳 모두
외고 · 국제고	중2~중3 네 학기 영어 — 확인한 13곳 중 12곳
과학고	최근 3~4개 학기 수학·과학 — 자유학기는 뺍니다

그러니 중1은 성적을 만드는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해도 아닙니다.

다만 동점자 처리 순위에 중1 성적을 쓰는 곳 1곳, 출결을 중1 1학기부터 합산하는 곳 1곳은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적은 안 보되 출결은 볼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0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1이 가장 불안한 해일까

견줄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에서는 단원평가라도 있었고 중2부터는 지필평가가 있는데, 중1만 그것이 없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남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옆집은 벌써 중3 과정을 한다」 같은 말이 확인할 길 없이 그대로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은 중1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각 학교가 공개한 입학전형 요향을 저희가 옮겨 쓴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해가 바뀌면 요향도 바뀐다. 반드시 그 해 요향을 확인해야 한다.

02 · 그러면 무엇을

중1에만 할 수 있는 것

성적이 안 세어지는 해는 뒤집어 보면 실패해도 되는 해입니다. **중1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왜 중1에만
공부하는 법을 바꿔 봅니다	성적이 안 세어지니 실험할 수 있습니다
안 맞는 것을 알아냅니다	중2에 알면 손해가 큼니다
넓게 읽습니다	중2부터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잡습니다	이때 안 잡히면 내내 갑니다

첫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값이 큼니다. 초등에서 하던 방식이 중학교에서 안 통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중1에 그것을 확인하고 바꿔야** 합니다 — 중2에 바꾸면 성적이 흔들리고, 중3에 바꾸면 늦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 학원에 앉아 있는 시간 말고요. 필기를 스스로 하는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지, 시험 전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지.

이 넷 중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중1에 잡으십시오**. 이걸 성적보다 오래 갑니다.

이 문은 근거 자료가 아니라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와 아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3 · 자유학년제

오해와 사실

자유학기(학년)제는 지필평가 대신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운영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들으셨다면	사실은
「시험이 없으니 논다」	수업과 평가는 있습니다 — 방식이 다를 뿐
「기록이 안 남는다」	학생부에는 남습니다 — 등급이 안 남을 뿐
「고입과 무관하다」	성적은 안 세지만 활동 기록은 읽힙니다
「그러니 선행을 몰아친다」	그 방향으로 쓰는 집이 많습니다 — 득실이 갈립니다

셋째 줄을 특히 보십시오.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고 면접합니다**. 자유학기에 한 활동이 그 자료에 남습니다.

선행으로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진도를 알고 있는 아이에게 선행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것을 모르는데 앞으로 나가면 중2에 두 배로 돌아옵니다.

판단하실 기준은 하나입니다 — 지금 배우는 것을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이 되면 나가셔도 되고, 안 되면 지금 것을 다시십시오.

출처: 교육부·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 운영 형태와 기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04 · 그래서 무엇을

중1 한 해의 차례와 점검표

시기	무엇을
3~4월	초등과 무엇이 다른지 아이가 겪게 됩니다
여름	공부 방식에서 안 되는 것을 찾습니다
2학기	찾은 것을 고쳐 봅니다 — 실패해도 됩니다
겨울	중2 대비 — 여기서부터 성적이 쎵니다

맨 아랫줄이 중1의 결론입니다. 중1 겨울방학이 실질적인 출발선입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중1 한 해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중1 성적이 고입에 안 들어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그래도 출결은 볼 수 있다 는 것을 아는가
- ☐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 시간 이 있는가
- ☐ 필기를 스스로 하는가
- ☐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가
- ☐ 시험 전에 스스로 계획 을 세우는가
- ☐ 선행을 한다면 지금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인가
- ☐ 중1 겨울 을 어떻게 쓸지 정했는가

셋째부터 여섯째가 안 되면 선행보다 그것을 먼저 잡으십시오. 이 넷은 중2·중3 내내 쓰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중1에 학원비를 가장 많이 쓰는 집이 많습니다. 「시험이 없어 불안해서」가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세어지는 해에 쓴 돈은 성적으로 안 돌아옵니다. 습관으로 돌아오면 값이 있고, 진도로만 돌아오면 값이 적습니다. 중1에 쓰실 돈이 있다면 중2·중3에 남겨 두시는 편이 저희가 본 바로는 낫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중1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중1 성적이 정말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교과 성적은 그렇습니다. 다만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동점자 처리 순위에 중1 성적을 쓰는 곳 1곳, 출결을 중1 1학기부터 합산하는 곳 1곳 드문 경우이지만 0은 아닙니다.

둘째, 학교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저희가 센 것은 지금 공개된 요항이고, 지금 중1이 원서를 낼 때는 요항이 두 번 더 바뀝니다.

그러니 「안 들어가니 놀아도 된다」로 읽지는 마십시오. 「성적을 만들려고 무리할 해는 아니다」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로 갈 아이에게도 중1은 중요합니다 — 중2 수학이 중1 위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Q. 주변에서 다들 선행을 하는데 안 하면 뒤처지지 않나요?

선행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것을 모르는 채로 하는 선행이 문제입니다.

판단은 간단합니다. 아이에게 이번 주에 배운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설명이 되면 나가셔도 됩니다. 안 되면 그 자리를 먼저 메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들 한다」는 말은 근거가 아닙니다. 같은 학원에 다녀도 따라가는 아이와 앉아만 있는 아이가 갈립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인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뒤처지는 것은 진도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진도는 따라잡히지만 구멍은 안 메워집니다.

한 줄로 남기면

중1 교과 성적은 고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성적을 만들 해가 아니라 방식을 고칠 해로 쓰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각 학교 공개 요항을 저희가 센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해가 바뀌면 요항도 바뀐다. 반드시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